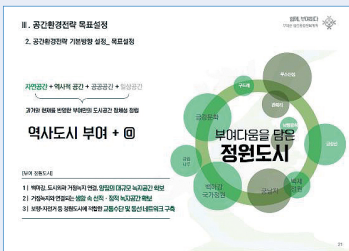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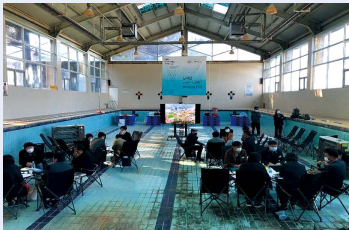


국토교통부, 지역경관 품질 향상 위해 지자체-민간전문가 협력 강화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
2021. 4. 1.

분야별 지원사업 우수 사례(2020)



- 상. **청주 신청사 건립**
신청사 국제현상설계 추진 등 설계발주방식 개선
- 중. **남해 공공프로젝트 디자인랩**
노후 스포츠파크 수영장에서 시설활용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
- 하. **부여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**
지역 공간환경 분석을 통해 정체성을 부여한 차별화된 비전 도출

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‘민간전문가-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’을 추진한다.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경관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. 그 결과 지역의 공공건축·개발사업은 디자인 수준 및 사업추진 역량을 크게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건축·도시·경관 사업을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.

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하고 지원 대상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였다.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약 1년간 예산뿐 아니라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과 모니터링,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. 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관리·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도출하고, 공공건축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.

한편 국토교통부는 총괄·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, 유지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응대 등을 지원하는 「공공건축특별법」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.

2021년 민간전문가-공간환경전략계획 선정 결과

구분	지원유형	지원금액	선정지자체
연속	민간전문가 운영	5,000만~ 6,000만 원/개소	경기 성남시/인천 서구/대구 수성구/ 경북 구미시·의성군/경남 남해군·창원시 충남 청주시, 부여·홍성군 총 10개소
신규	민간전문가 운영 +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	7,500만 원/개소 + 2억 원/개소	세종특별자치시/제주특별자치도/ 서울 서초구/충남 서천군 /경남 김해시 총 5개소
	민간전문가 운영	5,500만 원/개소	경기 양주시, 시흥시/전남 순천시 총 3개소
	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	지역전체 2억 원/개소 중점지역 1억 3,000만 원/개소	서울 강동구/경기 파주시, 수원시/ 충북 청주시/충남 당진시, 부여군/ 경남 남해군 총 7개소